

부모의 양육 행동이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충주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
안민철 · 서정석 · 문석우 · 김태호 · 남범우

The Influence of Parental Behavior on Ego Resilience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

Min Choul Ahn, M.D., Jeong Seok Seo, M.D., Ph.D., Seok Woo Moon, M.D., Ph.D.,
Tae Ho Kim, M.D., Ph.D., Beomwoo Nam,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Chungju, Korea

ABSTRACT

Objectives : Parental behavior is related to personality development and ego resilience in the childhoo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parental behavior on ego resilience i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

Methods : Subjects were selected based on 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in Korea youth panel study 2013(Boy : N=1,075, Girl : N=1,033). We used Parental behavior inventory(PBI) to estimate parental behavior and the Ego resilience scale to estimate ego resilience. The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We considered differences to be significant when $p < 0.05$.

Results : A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rational explanation, affection, Interest and inconsistency of the parental behavior domains influence ego resilience. Also rational explanation, affection and Interest of the parental behavior domain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go resilience($r=0.24$, $r=0.31$, $r=0.22$, $p < 0.01$). In contrast to early childhood studies, inconsistency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Conclusions : Adolescents who had taken more rational explanation, interest and affection from their parents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ego resilience. However, inconsistency of parental behavior showed no correlation with ego resilience of adolescents, which means that they are affected by several other factors than parental behavior. This study would be a basic research that could be a help to psychosocial approach in pediatric psychiatry.

KEY WORDS : Ego resilience · Parental behavior · Middle school student.

서 론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환경에서 환경적 요구에 융통적으로 적응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

력이다.¹⁾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매우 중요한 개인의 내적 자원으로^{2,3)} 스트레스가 많은 학교 환경 속에서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

Received: July 7, 2016 / Revised: October 17, 2016 / Accepted: October 20, 2016

This paper was written as part of Konkuk University's research support program for its faculty on sabbatical leave in 2007.

Corresponding author: Beomwoo Nam,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82 Gugwon-daero, Chungju 27376, Korea

Tel : 043) 840-8470 · Fax : 043) 845-8470 · E-mail : psychiatry@kku.ac.kr

요한 능력이다.⁴⁾ 기존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자아탄력성을 높인다.^{5,6)}

인간관계 중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모-자녀 관계는 인간의 성장과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후속 행동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며, 성격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러한 양육 행동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⁷⁻¹⁰⁾ 양육행동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하며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정서,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¹¹⁾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 속에서 잘 적응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효율적인 적응을 위해서 상황적 필요에 따라 충동을 통제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이 필요하다.¹²⁾ 자아탄력성은 Block 등¹³⁾에 의해 초기 성격 구조로 개념화되었고 역동적 성격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으며 내적, 외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는 적응능력을 뜻하게 되었다.

이전 연구결과¹⁴⁻¹⁶⁾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정생활과 학교 생활에 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 같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심리적 어려움을 덜 겪으면서 상황에 잘 적응하는 자아탄력성이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지를 아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이전 결과들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은 환경에 적응하는 긍정적인 성격 자원이며, 청소년의 생활적응에 있어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이다.

지금까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다.^{17,18)} 하지만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고 연구 대상도 적은 실정으로 중학교에 접어든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많은 인원을 포함하는 대단위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는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실제적으로 파악하며,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한다

1. 대 상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KCYPS :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의 3차년도 2013년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층화 다단계 집락 포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에 의해 최종 표본으로 선정된 중학교 1학년 2,108명(남성 : 1,075 ; 여성 : 1,033)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도구

1) 부모 양육행동 척도(Parental Behavior Inventory, PBI)

양육행동은 부모가 지각한 양육행동과 자녀가 지각한 양육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Medinuss¹⁹⁾은 아동이 주변의 환경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보고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허모연²⁰⁾이 제작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검사 문항을 활용하였고, 원칙도의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 동안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 행동을 애정-적대(love-hostility)와 자율-통제(autonomy-control)의 2개의 축으로 분류한 Schaefer^{21,22)}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개발되었으며 한국어판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이전 연구에 의해 검증된 바 있다.^{20,23)}

부모 양육행동의 각 요인은 관심(interest), 애정(affection), 비밀관성(inconsistency), 과잉기대(excessive expectation), 과잉간섭(over-involvement), 합리적 설명(rational expression)으로 나누었다. 각 요인을 정의하면, 관심은 자녀의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애정은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 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로 정의된다. 비밀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 행동을 나타내는 태도이다.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는 태도로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로서, 자녀의 흥미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른의 기준에 무조건 맞추도록 요구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불안해하는 태도이다. 합리적 설명은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갖고 이를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따르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나 훈육적인 처벌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개발과정²⁰⁾은 기존에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모 양육 행동 척도에서 구성된 요인들과 최근 정신병리에 결정적인 요인들로 밝혀진 요인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분명히 함으로서 각 요인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문항을 추출하여 제작하였다.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임상심리사 2명과 소아 정신과 전문의 3명의 검토를 거쳐 각 요인의 개념적 정의를 분명히 하고 문항을 수정하였다.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되어 있으며 역채점 방식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행동의 각 차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척도는 Block과 Kremen¹⁾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를 유성경 등²⁴⁾이 번역한 뒤 수정,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를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척도는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전 연구에 의해 검증되었다.²⁵⁾ 총 14개의 문항으로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새롭고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와 같이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 자신감, 자기수용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

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역산 채점 문항은 없다.

결 과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을 예언 변인으로 하고 자아탄력성을 기준 변인으로 하는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1). 그 결과,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차원 중에 관심, 애정, 비밀관성, 합리적 설명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자아탄력성과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중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 사이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행동에서 합리적 설명, 애정, 관심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24$, $r=0.31$, $r=0.22$, $p<0.01$). 부모의 양육행동 차원 간의 상관성을 보면 부모의 양육 행동에서 관심이 높을수록 부모가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애정이 높아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관심이 높을수록 비밀관성은 낮아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33$, $r=0.14$, $r=0.48$, $r=-0.1$, $p<0.01$).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애정이 높을수록 합리적 설명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과잉간섭, 과잉기대는 낮아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61$, $r=-0.22$, $r=-0.28$, $p<0.01$).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비밀관성 높을수록 합리적 설명은 낮아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Table 1. Regression between parental behavior and ego resilience

Criterion variable	Predictor variables	B	SE	β	T	p
Ego Resilience	Interest	.23	.89	.07	3.18	.001**
	Affection	.62	.07	.25	8.72	.00**
	Inconsistency	.27	.07	.09	3.46	.001**
	Excessive Expectation	.09	.06	.04	1.44	.149
	Over-involvement	.01	.07	.01	.16	.868
	Rational Explanation	.27	.08	.08	3.37	.001**

* : $p<0.05$, ** : $p<0.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behavior and ego resilience

Variables	Rational explanation	Over-involvement	Excessive expectation	Inconsistency	Affection	Interest
Rational explanation						
Over-involvement	-.15**					
Excessive expectation	-.02	.65**				
Inconsistency	-.22**	.59**	.43**			
Affection	.61**	-.22**	-.01	-.28**		
Interest	.33**	-.03	.14**	-.01**	.48**	
Ego resilience	.24**	.01	.09	.01	.31**	.22**

* : $p<0.05$, ** : $p<0.01$

보였으며 과잉간섭, 과잉기대는 높아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22$, $r=0.59$, $r=0.43$, $p<0.01$). 과잉기대가 높을수록 과잉 간섭이 높아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65$, $p<0.01$).

고 찰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과의 영향 및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이 자신 부모의 양육 행동을 관심, 애정, 합리적 설명으로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유아의 자아탄력성 연구²⁶⁻²⁸⁾에서 부모의 양육 행동이 관심, 애정, 일관성, 합리적 설명으로 지각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이 비일관적인 것이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은 것은 유아와 초기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비일관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 초기 학령기 아동과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로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양육 행동 중에 유아기에는 일관성 있는 규제 행동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아탄력성을 높이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생은 유아에 비해 자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부모 애착에 의한 직접적 영향보다 자아존중감 같은 자기 내적 요인이나,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29,30)} 즉 청소년기에는 자아탄력성이 부모 애착이나 관계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변동 가능성이 초기 아동기에 받는 영향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비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은 ‘부모님께서서는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 치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부모님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손님이 오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게 대한 부모님의 태도가 다르다.’의 세 문항으로 질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이 유아나 초기 학령기 아동과 중학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번째로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 양육 행동은 문화적인 배경, 사회 경제적인 지위, 부모의 학력과 연령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구성 요인에 대하여 고려를 하여야 한다.

위의 결론을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을 2013년 4월 기준 전국의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와 대상을 토대로 하여 연구한 것이므로 일반화 시키기에 제한이 따른다. 또한 본 연구

는 실제 문제 행동을 나타내어 병원을 방문한 중학생이 아니라 일반 중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학대나 방치에 포함되는 문항들은 “전혀 아니다”에 가깝게 평균이 분포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표집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예측 변인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 행동만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는 부모의 양육행동 외에도 기질이나 또래관계, 지능, 학업적인 측면 같은 많은 변인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부모의 학력과 연령에 따라 척도가 일반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 모 든 집단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는 자녀가 내용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셋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과 실제 부모가 자녀에게 나타내는 양육행동이 어느 정도 일치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양육행동 그 자체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인 측면에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기준 변인으로 자아탄력성만을 설정하였으나 자아존중감, 자기역량감 또한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배경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2013년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단위 연구로서 부모의 양육 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돕는 부모역할의 중요성과 다른 연령 군과 차별화 된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개념에 대해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1) Block J,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 Clarifying their conceptual and empirical linkage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0:349-361.
- (2) Rutter M.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987;57:316-331.
- (3) Garmezy N.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991;34:416-430.

- (4) **Sroufe LA, Carlson E, Shulman S.** Individuals in relationships: Develop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1993. p.315-342.
- (5) **Kwon HJ.** Ego resiliency in school-aged children correlates with interpersonal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006;13:17-32.
- (6) **Na SY, Ahn MH.** Parental emotional bond and adult attachment: The mediating role of ego resiliency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1; 16:331-355.
- (7) **Raymond M.**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the amount of time adolescents spend alone and with parents and peers. *Child development* 1982;53:1512-1519.
- (8) **Stafford M, Kuh DL, Gate CR, Mishra G, Richards M.**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offspring's positive mental well-being from adolescence to early older age. *J Posit Psychol* 2016; 11:326-337.
- (9) **Volling BL, Oh W, Gonzalez R, Kuo PX, Yu T.** Patterns of Marital Relationship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from One Child to Two. *Couple Family Psychol* 2015;4:177-197.
- (10) **Sirignano SW, Lachman ME.** Personality change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The role of perceived infant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985;21:558-567.
- (11) **Schaefer ES.**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1965;36:413-424.
- (12) **Klohnen EC.**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0:1067-1079.
- (13) **Block JH, Block H.**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Child Psychology* 1980;13: 39-101.
- (14) **Anita JH, Genevieve EC.** Adolescent Resilience.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999;31:243-247.
- (15) **Han HA, Doh HS.** The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Ego-Resilience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08;29: 87-101.
- (16) **Huey J, Stanley J, Weisz JR.** Ego control, ego resiliency, and the Five-Factor Model as predictors of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clinic-referr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97;106:404-415.
- (17) **Jodi S, Carlos V, Kathryn LC.** Predicting early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social competence, and physical health from parenting, ego resilience, and engagement coping.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11;31:548-576.
- (18) **Bae YJ, Lim JY.**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on preschooler's social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ffortful control.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2013; 34:161-173.
- (19) **Medinnus GR.** Adolescent's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65;29:150-154.
- (20) **Huh MY.**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04;12:170-189.
- (21) **Schaefer ES.** Development of a materi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959;95:83-104.
- (22) **Schaefer ES.**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 Consult Psychol* 1965;12:170-189.
- (23) **Rhee SH, Doh H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arenting behavior scale for parents of early school-age children. *Korea J of Child Studies* 2014;35:111-133.
- (24) **You SK, Hong SH, Choi BY.**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attachment and existential spirituality between family risks and adaptation.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004;18:393-408.
- (25) **김미향, 김성희.** 중학생 자아탄력성 척도개발. *상담학 연구*; 2010. p.189-206.
- (26) **Ryou WR.** The Effect of Parental Attitude, Preschooler's Ego-Resilience o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Child education* 2014;23:289-299.
- (27) **Mary IA, Shelly BL, Michael TU.** Pathways Between Social Support, Family Well Being, Quality of Parenting, and Child Resilience: What We Know.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005;14:169-281.
- (28) **Kim OS, Oh YJ, Choi MG.** Family strengths, ego-resilience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5;19:761-777.
- (29) **Furman W, Buhrmester D.**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1992;63:103-115.
- (30) **Harter S.** The self. Eisenberg IN, editor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NJ: Wiley;2006. p.505-570.

연구목적

중학생의 성격 발달 및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와 이에 대한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층화 다단계 집락 포집 방법으로 표본(남성: 1,075; 여성: 1,033)을 선정하였으며 부모 양육행동 척도와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 양육행동과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을 평가하였다.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영향 요인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회귀 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 합리적 설명, 애정, 관심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 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 합리적 설명, 애정, 관심이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24$, $r=0.31$, $r=0.22$, $p<0.01$). 그러나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비일관성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결 론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합리적 설명, 애정, 관심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비일관성이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은 것을 통해 유아와는 달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중학생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정신사회적 접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심 단어 : 자아탄력성 · 부모 양육행동 · 중학생.